뉴스홈 | 최신기사

美유권자, '경제'에 주목..오바마에 더 기대(종합)

송고시간 | 2008-09-25 15:37











최인영 기자

美유권자, '경제'에 주목..오바마에 더 기대(종합)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미국의 금융 위기가 대선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미국의 유권자들은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후보가 경제 문제에 보다 능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NBC 뉴스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유권자의 약 60%가 미국의 금융 위기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57%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경제'를 꼽았다.



이어 응답자의 46%는 경제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 후보로 버락 오바마 민주당 상원의원을 지목했으나 공화당 후보로 나선 존 매케인 상원의원을 꼽은 유권자는 34%에 불과했다.

월가의 금융 위기를 가장 잘 다룰 것으로 기대되는 후보를 묻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35%가 오바마를, 30%가 매케인을 꼽았다.

한편 유권자의 약 5분의 1은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부 동층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층은 경제 위기 대처 능력이 더 탁월하다고 판단되는 후보를 선택할 것으로 보여 오는 26일로 예정된 첫 토론회에서 양당의 후보가 제시할 경제위기 탈출 해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P 통신과 야후 뉴스가 지난 5-15일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유권자의 18%는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 거나, 경제 문제에 관해 후보들이 제시하는 입장에 따라 지지 후보를 바꿀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19-22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유권자의 57%가 미국 정부가 현재 경제 위기 상 황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같은 조사에서 경제 위기 상황을 잘 다룰 것으로 여겨지는 대통령 후보로 오바마를 지목한 유권자는 전체의 47%였으 며, 매케인이라고 답한 유권자는 35%였다.

이런 가운데 폭스 뉴스의 여론조사에서 오바마의 지지율이 45%로 39%의 지지율을 받은 매케인보다 6% 포인트 앞섰 으며, 블룸버그 통신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오바마가 매케인을 49% 대 45%의 근소한 차이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지지하고 있는 부시 정부의 7천억 달러 규모 구제금융안에 대해 오바마와 매케인 후보는 모두 독 립적 감시 기구 설치 등을 촉구하며 찬성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abbie@yna.co.kr













핫뉴스 →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한국 유튜버,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래퍼 장용준 1심 실...

'가짜 여성계정 운영 의혹' 소개팅앱 내부고발...권익...

박찬욱, 칸 초청에 "기쁜 봄소식...오래 기립박수 칠...

반려견도 육식보다는 채식이 더 건강하고 덜 위험해





오바마 "진화론 믿는다...지적설계 교육엔 반대"

<"초대받지 않은 국민이 술값 내야 하나">

美 대선 부동층 18%..관건은 '경제'

"부시, 매케인-오바마에 백악관 회의 제안"<美NBC>

오바마측 "매케인에 뒤통수 맞았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8/09/25 15:37 송고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 02:22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누가 학대했나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悟 결국 우크라에

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영상

We Do Technology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싱'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尹당선인·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어"

모임-영업-행사 제한 등 거리두기 완전 해제...마스크는 '유지'

뉴스 상품

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유튜브채널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뭐하고 놀까? #**끟** →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해외배포 보도자료국내배포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 1 2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 59 대병원 자원봉사 3 '유퀴즈' 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종합) <u>⊕</u> 51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염색...조기등판론 속 활동 4 재개 예열? ⊕ 41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 힐 예정"

sns **f**

y

Ö

댓글 많은 뉴스

기준금리 1.25→1.50% 또 인상...4%대

인플레 '불 끄기'

테마별뉴스 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마이더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제난포털 날씨 주요신문톱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뉴스+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계약사/제휴문의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클럽 #흥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

관련사이트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성기홍 [편집인]조채희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